
2026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학회 참석 및 발표 해외출장 복명

1. 출장 목적

-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연례학술대회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2026) 참석 및 한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례 소개
-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들과 학술교류 및 향후 정책 개선방향 도출

2.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 (일시) 2026.08.19.(화) ~ 08.24.(월)
- (학회 개최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 (학회 개최 장소) Toronto Metropolitan Univ.
- (출장자) 김상효 연구위원, 정문수 연구위원, 류근관 자문단장(NRC)

3. 주요 일정

일자	일정
08.19.(수)	·인천 → 토론토 이동 - 8.19.(수) ICN 09:35 → YYZ 09:55 ·기본소득 관련 교민 의견수렴 모임 참석
08.20.(목) ~ 08.22.(토)	·BIEN Congress 2026 참석 및 발표(8.20~22) - 류근관/김상효/정문수: 각각 1건의 발표 ·기본소득 관련 연구자 학술교류
08.23.(일) ~ 08.24.(월)	·토론토 → 인천 이동 - 8.23.(일) YYZ 12:55 → ICN 8.24.(월) 16:30 (+1일)

4. 주요 출장 결과

4.1. 학회 개요

□ 제25차 BIEN 학술대회 개요는 아래와 같음.

〈표 1〉 학회 개요

구분	내용
주제	Basic Income and the Polycrisis: The Key to Unlocking the Puzzle
기간	2026. 8. 19.(수) 사전회의 ~ 8. 22.(토) 본회의 종료
장소	Toronto Metropolitan University, Ted Rogers School of Management
규모	전체 세션 3회, 병행 세션 66개(11개 세션 × 6일 동시), 포스터 17편, 아트 설치 2건
차기 대회	2027년 폴란드

〈표 2〉 학회 주요 일정

일자	구성
8. 19.(수)	캐나다 사전회의, 영화 「It's Basic」 상영, 토론토 네트워킹 행사
8. 20.(목)	개회식, BIEN 40주년 기념 전체 세션, 복합위기 전체 세션 1, 병행 세션 1~4(24개), 리셉션
8. 21.(금)	복합위기 전체 세션 2, 병행 세션 5~8(24개), 다큐멘터리 「The Elephant Run」 시사
8. 22.(토)	BIEN 총회·포스터 발표, 병행 세션 9~11(18개), 폐회

4.2. 세션별 주요 내용

4.2.1. 8월 20일(목)

□ 개회 및 전체 세션 | 09:00-11:30

- 「Congress Opening and Welcome」 | 대회 개막 및 운영 안내
- 「Celebrating 40 Years of the Basic Income Movement」 | BIEN 40주년 기념 전체 세션
- BIEN은 1986년 출범. 2026년이 네트워크 창립 40주년에 해당하며 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
- 「Polycrisis Plenary 1: The Big Picture」 | Guy Standing, Monika Viktorova, Almaz Zelleke, Fabienne Hansen / 사회 Jamie Cooke
 - 복수의 위기가 중첩된 국면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전체 구도를 조망

□ 병행 세션 1 | 11:30-12:30

- 「The Tragedy of the Education Commons」 | Guy Standing(SOAS University of London, 영국)
 - 교육을 공동자원으로 규정하고, 시장화와 접근 격차가 그 기반을 훼손하는 문제를 기본소득과 연결
 - 기본소득이 학습에 필요한 시간·안정·선택권을 보완하는 경로 제시
- 「What We Learned: Evidence and Insights from the Ontario Basic Income Pilot」 | Mohammad Ferdosi 외 5인(캐나다, 토론토메트로폴리탄대·칼턴대·퀸스대·해밀턴빈곤감축라운드테이블)
 - 온타리오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 후 조기 종료되어 정부 평가가 미완결된 경위 정리
 - 참여자의 건강·식생활·고용·존엄·정책 신뢰 경험을 복수 자료로 복원하고, 중도 종료가 남긴 연구·정책 교훈 도출
- 「BIEN and the Arts」 | Olaf Michael Ostertag(BIEN 집행위 제휴네트워크 담당)
 - BIEN과 예술 활동의 관계, 예술가 소득과 문화적 표현, 운동의 대중 소통 방안 검토

- 「Basic Income: Breaking Through to the Right Wing」 | Hannah Pazderka(앨버타대), John Rook(켈거리대, 캐나다)
 - 가족 안정·개인 선택·공동체 참여 등 보수적 가치의 언어로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전략 제시
 - 우파 청중이 중시하는 가치와 정책 우려를 매개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접근
- 「Leaning into Unconditionality: The Promise of Basic Income and the Future of Left Strategy」 | Neil Howard(배스대, 영국)
 - 무조건적 소득이 취약 노동을 거부할 힘과 조건부 복지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논거 제시
 - 기본소득을 공공서비스의 대체물이 아니라 무조건성·노동권·조직화와 연결하는 좌파 전략으로 위치
- 「The Legislative Politics of Finland's Basic Income Experiment」 | Lindsay Stirton(서식스대, 영국)
 - 핀란드 실험의 성패를 효과 크기가 아니라 정당 연합·정부 내 이해관계·제도적 유산이 형성한 정치적 기회 공간에서 재평가
 - 실험을 가능하게 한 입법 연합과 그 한계를 규명
- 「Basic Income by Accident: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Basic Income in Finland」 | Jurgen De Wispelaere(BIEN), Antti Halmetoja(탐페레대, 핀란드)
 - 핀란드 실업보장 제도가 소규모·비의도적 변화의 누적으로 부분 기본소득에 근접해 온 과정 분석
 - 기존 제도의 경로·행정 규칙·우연한 조정이 정책 가능성을 형성하거나 제약하는 동학 제시
- 「From the Field: Building Guaranteed Income Programs That Center Community」 | Camie Goldhammer(Hummingbird Indigenous Family Services), Julia Ford(AidKit, 미국)
 - 원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현금 지원에서 기술·운영 체계가 공동체 방식에 맞추어야 한다는 실행 교훈 제시

- 지급 시스템보다 신뢰·문화적 적합성·참여자 경험·현장 파트너십을 설계의 중심에 배치

□ 병행 세션 2 | 13:30-15:00 | 대만 UBI 포럼(1)

○ 세션 개요

- UBI Taiwan이 한 세션을 단독 구성해 문제 진단·정책 프레이밍·지역 파일럿 설계·수용성 조사를 연속으로 제시. 대만의 기본소득 논의가 옹호 단계에서 구체적 제도 설계 단계로 이행했음을 보여줌.

○ 「Tailored Policy Proposal for Taiwan: Why Youth Basic Income could be the Beachhead」 | Ping-Yu Lin(UBI Taiwan)

- (논지) 대만이 겪는 세 위기가 각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되는 하나의 분배 실패에서 비롯되는바, 개별 대책을 늘리는 대신 청년을 첫 수급 집단으로 삼아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그 재원은 이미 국제 기준보다 낮게 매겨져 있던 조세를 정상화해 확보하자고 제안함.
- (문제 진단) AI 노동시장 교란·부의 집중·인구 절벽을 되돌릴 수 없는 3대 위협으로 규정함.
 - * 반도체 단일 업종이 시가총액의 57%, TSMC 1개 기업이 45% 점유. 집적회로 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력의 7%, TSMC 직접고용은 0.7%
 - * 25세 이하 노동자의 57%가 월 29,000 대만달러 미만 소득. 최하위·최상위 20% 가계 자산격차는 1991년 17배에서 67배로 확대
 - * 합계출산율 2025년 0.695로 역대 최저. 저출생 예산은 7년간 5배 증가하여 1,250억 대만달러를 초과했음에도 반전 미발생
- (제안) 18~35세 청년 약 500만 명에게 정부 공시 최소생계비 월 15,515 대만달러 지급. 연 소요 9,310억 대만달러
- (재원) 2028년 목표 8,210억 대만달러를 8종으로 구성
 - * 기존 조세 정상화 6종: 부가가치세 5%→8%(3,700억), 자본이득 대체최저한세 12%→15%(1,280억), 토지보유세 공시지가 현실화 19.6%→40%(1,020억), 주식 일일매매 거래세 원상복귀(550억), 채권거래세 신설(320억), 토지양도소득세 감면 축소(140억)
 - * 신규 재원 2종: 외환보유고 기반 3조 대만달러 국부펀드 수익(600억), 탄소세 CO2 톤당 300대만달러(600억)

○ 「The Dynamics of UBI: Rethinking UBI Policy Framing from a Macro Perspective」 | Yi-Tzu Chiu(UBI Taiwan)

- (논지) 기본소득의 성과를 개인의 소득 증가로만 측정하면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놓치는바, 경제·노동·심리·사회의 네 경로로 파급되는 체계적 변화를 정책 설계와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 기본소득을 생계 지원이나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발전 도구 모델로 규정
- 정책 프레이밍 5대 목표를 빈곤 완화·복지제도 효율화·노동 전환 대응·부의 재분배·대상집단 임파워먼트로 설정
-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경제(구매력 제고·혁신 진입장벽 완화), 노동(협상력·이동성), 심리(시간 주권), 사회(도시-농촌 격차 재조정)의 4개 영역으로 구성
- 궁극 목표를 단순 생존에서 가치 창출로의 전환으로 설정하고, 국가 거버넌스 내 지렛대 지점 발굴을 과제로 제시

○ 「From Central Vision to Local Action: Exploring Feasible Designs of Localized UBI Pilots in Taiwan」 | Yin-Jie Huang(UBI Taiwan)

- (논지) 대만 복지가 청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안전망에서 배제해 온바, 2026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방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근거로 윤린현에서 근로소득에 따라 완만히 감액되는 청년 소득보장을 먼저 시행하자는 제안
- 대만 복지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청년층으로 지목. 18~64세는 추정소득 제도로 실제 소득이 없어도 최저임금 소득자로 간주되어 비정규직·기능직·플랫폼 노동자가 배제
- 30세 미만 노동자의 36.8%, 65세 미만 전체 노동자의 약 20%가 법정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
- 2026. 1. 24. 시행 「청년기본법」이 18~35세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지방정부에 청년 정주·귀향 지원 권한 부여
- 시범지역으로 윤린현 제시. 선정 기준은 주거·노동·물류 시장의 탄력성, 기존 청년정책과의 연계성, 두류(행정·대학)·호위(교통·산업)·북향(관광·문화·농업)의 상호보완적 경제 다양성
- 급여는 보장액에서 감쇄율과 근로소득의 곱을 차감하는 선형 감쇄 방식. 보장액 15,000 대만달러·감쇄율 50% 적용 시 소득 30,000 대만달러에서 완전 소멸
- 커버리지 40~70% 목표, 5년 사업기간 확보, 소득 미증빙 시 본인 선서와 5~10% 무작위 감사로 검증

○ 「Local Policy Observation: Field Research on Taiwan's Universal Cash Handout」 | I-Ting Tseng(UBI Taiwan)

- (논지) 일회성 보편 현금지급을 실제로 경험한 청년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제도의 수용을 좌우하는 것은 지급액이 아니라 그 돈을 무엇이라 부르는가와 타인의 자기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발견
- 정부의 NT\$10,000 보편 현금지급을 보편적·무조건적 현금의 직접 경험 계기로 보고 청년의 인식 분석
- 18~35세 청년 10명을 유의표집·최대다양성 표집으로 선정, 반구조화 심층면접 실시
- 청년의 경제생활이 가족에 결합. 지원 수혜·제공 양방향 모두에서 독립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음
- 정책 명명이 인식을 좌우. 세금 환급 프레임은 세뱃돈으로, 기본소득 프레임은 안전망·경제적 바닥으로 이해
- 자아-타인 인식 비대칭 확인. 본인 사용은 구체적 일상으로 설명하되 타인 사용은 낭비·도박으로 상정
- 무조건적 현금 정책의 핵심 과제를 타인의 자기결정을 신뢰할 준비 여부로 정리

○ 「Regional Vision: 2027 Indo-Pacific UBI Summit Preparatory Plan & Sci-Fi Novel Launch」 | Jia-Kuan Su(UBI Taiwan)

- 2027년 인도태평양 기본소득 정상회의 준비 구상과 공상과학 소설 발간 계획 제시

□ 병행 세션 2 | 13:30-15:00 기타

○ 「Using Feminist Advocacy and Perspectives to Advance a Guaranteed Liveable Income」 | Trish Altass(Women's Network PEI), Amanda Therrien(전국여성법협회, 캐나다)

- 돌봄·성별 임금격차·빈곤·폭력 등 젠더화된 경제 불안을 기본소득 옹호의 중심에 배치
- 여성단체를 포함한 광범위 연합과 주 단위 보장소득 제안을 연결한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정책 추진 경험 제시

○ 「The ethics and feasibility of carbon tax and unconditional dividend」 | Malcolm Torry(배스대 정책연구소, 영국)

- 탄소세 수입을 전원에게 무조건 배당하는 방안의 도덕적 근거와 실행가능성 평가
- 세율·세원·국경 조정·배당 수준에 따라 환경효과와 형평성이 달라지는바 구체 설계가 관건

- 「How can artificial intelligence help fund a guaranteed basic income?」
| Jiaying Zhao·Lorne Whitehead(브리티시컬럼비아대), Yuen Pau Woo·Kim Pate(캐나다 상원)
 - AI 사용량 및 노동 대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AI 배당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제시
 - 인간 노동의 세부담 경감, AI를 활용한 복지 행정·조세 준수 개선 등 5개 경로 제시
 - AI가 창출한 생산성 이익의 광범위한 공유를 핵심 목표로 설정
 -
- 「Making the Problem Pay: Funding a Guaranteed Basic Income Through Land Value Taxation」 | Liam Wilkinson, Floyd Marinescu(Common Wealth Canada)
 - 공동체와 공공투자가 형성한 토지가치의 일부를 환수해 노동소득세 인하 또는 시민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
 - 토지세가 투기 억제와 자원 조달을 동시에 수행하는 논리 전개. 토지가격 조정·현금흐름이 약한 소유자·지역별 과세권이 설계 쟁점
- 「Film Screening: Unimaginable | a portrait of Lance Dingman」 | Terrance Odette(Monalicia Films) 외(캐나다)
 - 빈곤·장애·기본소득 참여 경험과 인간의 존엄을 한 인물의 서사로 조명한 다큐멘터리 상영
- 「Guaranteed Basic Income in Canada: Frameworks and Public Support」
| Simon Sheppard·Jiaying Zhao(브리티시컬럼비아대), Evelyn Forget(매니토바대), Tracy Smith-Carrier(로열로즈대)
 - 빈곤선의 70%를 보장하고 순소득 1달러당 0.50달러를 감액하는 캐나다 보장기본소득 틀 제시
 - 세 가지 재원모형에서 빈곤을 57.0~64.5% 감축하는 모의 결과 보고
 - 사전등록 전국조사 3회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소 1개 모형을 선택
- 「Leveraging Autonomous Motivation to Pay Income Tax to Fund Universal Basic Income」 | Jessica Ouellet·Jacques Forest(퀘벡대 몬트리올), Joshua L. Howard(모나시대, 호주)
 - 강제·처벌 중심의 조세 순응 설명을 자기결정성이론으로 대체해 납세의 자율적

동기를 높이는 조건 탐색

- 기본소득 재원 조세가 공정성·투명성·공동 목적·심리적 욕구 충족과 결합될 때의 수용성 변화 검토

○ 「Policy Framing of China's Child Basic Income: Beyond the Four Canonical Narratives」 | Furui Cheng 외 3인(중국정법대)

- 중국 아동 기본소득을 설명해 온 네 가지 대표 서사를 검토하고 대안적 정책 프레임 제안

○ 「Back on the Agenda with Full Force: How Brazil is Building Basic Income as a Response to the Polycrisis」 | Tomas Paes de Carvalho(Equal Right)

- 불사파밀리아와 시민기본소득법의 축적 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재확장하는 브라질의 움직임 소개
- 빈곤·기후·불안정 노동 등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정책연합과 실행 경로 제시

○ 「National Legislative Action for a Guaranteed Basic Liveable Income in Canada」 | Kim Pate(캐나다 상원)

- 상원법안 S-206은 17세 초과 캐나다 거주자의 보장생활기본소득 접근을 위해 재무장관이 국가 틀을 마련하고 정부·원주민 파트너와 협의하도록 규정
- 급여액 확정이나 즉시 시행이 아니라 국가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입법 절차에 해당

□ 병행 세션 3 | 15:15-16:15 | 대만 UBI 포럼(2)

○ 「First Corporate-funded UBI Pilot program: Positioning UBI experiment as strategic ESG initiative」 | Pin-I Lee(UBI Taiwan)

- 기업 재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일회성 사회공헌이 아니라 ESG 전략으로 설계하는 방안 제시
- 대상자 선정, 지급액·기간, 기업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평가, 종료 후 지속가능성이 핵심 검토 요소

○ 「Should Disabled People Receive a Higher Basic Income?」 | Chih Wei

Wu(UBI Taiwan)

- 보편적 소득 바닥만으로는 장애 관련 추가 비용과 필요 서비스가 해소되지 않는
바 현금 보충과 현물·서비스 지원의 병행 설계 필요
- 장애인에 대한 상향 급여와 별도 현금수당·자원 기반 지원을 비교하며 적정성·접
근성·자율성·행정 부담을 함께 검토

○ 「From UBI to UBAI: Why the AI Coin is the New Frontier of Economic Justice」 | Ju-Chun Ko(UBI Taiwan)

- AI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AI Coin이라는 분배 장치와 결합해 보편적 기본소득
에서 보편적 AI 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상 제시

□ 병행 세션 3 | 15:15-16:15 | 기타

○ 「Challenging neoliberalism to achieve better provincial income supports」 | Molly McCracken(캐나다정책대안센터 매니토바), Desiree McIvor(Make Poverty History Manitoba)

- 낮고 조건이 많은 사회부조를 빈곤선에 근접한 생활가능 소득지원으로 전환하고
주거·보건·고용서비스와 연계할 것을 요구
- 재정긴축과 개인책임 중심의 정책 틀이 급여의 적정성·접근성을 제약하는 구조
비판

○ 「It is not easy to introduce a basic Income」 | Alexander De Roo(BIEN Netherlands)

- 기본소득 도입 과정의 재원·기존 복지와의 관계·정치연합·대중 신뢰 등 장애 요인
을 정책 경험으로 정리

○ 「Lessons for Basic Income Policy Advocates and Program Designers from Canada's Pandemic Income Supports」 | Sid Frankel, Evelyn Forget(매니토바대)

- 캐나다 긴급대응급여(CERB)가 기본소득은 아니었으나 위기 시 신속한 현금 전달
로 기존 안전망의 사각지대와 행정 역량을 노출
- 조건·환수·연방과 주의 관계·사후 정치적 반발이 함께 나타난바, 신속성뿐 아니라
명확한 자격규칙·조정체계·대중적 정당성의 사전 준비 필요

- 「Roundtable | Representation and Voice in Basic Income Research」 | Almaz Zelleke(뉴욕대 상하이)
 - 기본소득 연구에서 연구 질문의 결정 주체와 현금 수급 경험자의 해석·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논의
 - 공동설계·보상·결과 검토·데이터 거버넌스의 권한 배분을 대표성 확보의 요건으로 제시
- 「Culture Compass: Ireland, USA, Canada | Artist's Basic Income?」 | Craig Berggold, Wone Vang, Ricardo Beaird, Greig de Peuter
 - 아일랜드·미국·캐나다의 예술인 소득보장 논의를 비교하고 예술노동의 불안정성을 광의의 기본소득 요구와 연결
- 「Why give a Basic Income to Artists」 | Craig Berggold(온타리오기본소득 네트워크·윌프리드로리에대)
 - 예술노동이 창작 외 준비·연구·돌봄 시간을 포함하되 소득은 불규칙하고 상당 부분이 무급인 구조를 예술인 기본소득의 근거로 제시
- 「Artists, Cash, and Community: Springboard for the Arts' Guaranteed Income Pilot」 | Wone Vang, Ricardo Beaird(Springboard for the Arts, 미국 미네소타)
 - 예술가 100명에게 월 500달러를 5년간 무조건 지급. Otter Tail 지역과 Frogtown·Rondo 지역에 절반씩 배치
 - 현금 효과 평가와 함께 예술가 경험을 공적 서사로 전환하는 내러티브 작업 병행
- 「Artists on Basic Income: Beyond Precarious Livelihoods」 | Greig de Peuter(윌프리드로리에대, 캐나다)
 - 2021년 온라인 위원회에 참여한 예술가 20명의 증언을 주제별로 분석해 불안정 생계·창작시간·복지제도·기본소득 관점 정리
- 「Predicting the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Universal Basic Income」 | Timothy MacNeill(온타리오공대, 캐나다)
 - 기본소득의 환경효과가 소득효과·노동시간·소비구성·정책재원에 따라 긍정과 부정 양방향으로 나타나는 경로를 통합평가모형 시뮬레이션으로 연결

- 「Basic Income and Environmental Justice: From Theory to Practice」 | Patrick Brown(Equal Right), Robert Fletcher(바헤닝언대, 네덜란드)
 - 무조건적 정기 현금을 생계안정과 환경보전의 공정한 비용분담에 연결하고, 보호 구역 중심 보전이 지역주민에게 전가한 부담을 경감
 - 지급대상·재원·토지권·주민참여·생태성과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설계 제시
- 「The impact of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on homelessness: A replication and expansion experiment」 | Jiaying Zhao, Simon Sheppard(브리티시컬럼비아대)
 - 일시금 8,500캐나다달러를 98명에게 지급하고 112명의 대조군과 비교한 사전등록 무작위실험 수행
 - 초기 3개월에 안정적 주거·저축·지출의 개선 확인. 새 표본에서 사전지정 결과의 재현 여부가 본 발표의 초점
- 「From Individual Impact to System Change: Testing Financial Agency in Homelessness」 | Steph Gore, Katie O'Connor(Greater Change, 영국)
 - 노숙 경험자에게 개인별 필요에 맞춘 예산을 제공하고 약 390명 규모의 무작위 대조시험으로 주거·재정·웰빙 결과 평가
 - 금융 주체성을 존중하는 전달모형과 개인 수준 지원이 서비스 체계 변화로 이어지는 조건에 초점

□ 병행 세션 4 | 16:30-18:00

- 「Beyond Poverty Reduction: Basic Income Guarantee as an Anti-Violence Strategy」 | Haily MacDonald 외(Huron Transition Homes, 캐나다)
 - 폭력 생존자를 대상으로 질적 면담·포커스그룹과 주제분석을 수행해 소득불안과 제도 실패가 안전한 선택을 제약하는 경로 규명
 - 보장소득을 중요한 기반으로 보되 주거·법률·보건서비스와 구조적 변화 없이 현금만으로 폭력을 종식할 수 없음을 명시
- 「SF Guaranteed Care Income Pilot: Paying Mothers for Caregiving Work」 | Rachel West, Madeleine Levin(미국 샌프란시스코)

- 참여 어머니에게 1년간 월 2,000달러 지급. 두 차례 면담을 통한 참여형 질적평가로 돌봄·경제안정·건강·안전의 변화 기록
- 「Reflections on Lived Experience of Basic Income, Social Assistance, and Mental Illness」 | Andre Canivet(캐나다)
 - 기본소득과 사회부조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정신질환과 함께 제도를 이용할 때의 차이를 1인칭으로 증언
 - 조건·감시·낙인·소득안정이 일상에 작동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 「Parenting and Family Life in the Ontario Basic Income Pilot」 | Elaine Power 외 3인(퀸스대, 캐나다)
 - 안정된 소득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시간 선택과 가족관계에 여유를 부여한 참여자 경험 기록
 - 부모 역할과 가정생활에 초점을 좁혀 해당 경로를 설명
- 「Two projects on the front lines of political discourse in Canada: Senate Bill S-206 and the Prince Edward Island proposal」 | Barbara Boraks, Patricia Altass, Sean Casey, Kim Pate(캐나다)
 - 상원법안 S-206은 보장생활기본소득 국가 프레임워크 개발을 재무장관에게 요구하는 연방 입법안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제안은 주 단위 보장소득 실증을 연방정부와 공동 추진하는 별도 경로
 - 전국적 권리·기준을 수립하는 입법과 특정 지역의 전달·비용·성과 시험이 상호 근거와 정치동력을 제공하는 구조 제시
- 「Weighing the Benefits and Harms: Interrogating the Ethics of Basic Income Experimentation」 | Tracy Smith-Carrier 외 3인(캐나다)
 - 기본소득 실험의 윤리지침으로 해악 회피, 참여자의 존엄·주체성 존중, 권력 불균형 완화, 신뢰·투명성과 실질적 무조건성 제시
 - 급여 종료, 통제집단 배제, 개인정보, 정치적 오용이 초래하는 위험을 지식 생산의 편익과 함께 평가하며, 결과의 유익만으로 절차적 피해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논증
- 「From Displacement to Dividend: The U.S. AI Dividend Pilot」 | Kaitlin Cort, Scott Santens, Nicholas Salazar, Dean Grey(Fund for Guaranteed

Income, 미국)

- AI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약 50명에게 2026. 3.부터 월 최대 1,000달러와 멘토링·재훈련 지원 제공
- 전 국민 영구 지급이 아니라 특정 참여자를 위한 한시적 보장소득 실험에 해당

○ 「Direct Cash Assistance in a Polycrisis: Post-Disaster Cash Transfers in Rural Western North Carolina」 | Lila Stith, Leah Hamilton 외(애팔래치안주립대, 미국)

- 허리케인 이후 재해 1~3개월 뒤 지원 집단과 약 9개월 뒤 지원 집단을 비교하는 혼합방법 평가 수행
- 신속한 무조건 현금인 농촌 재난복구에서 사용되는 용처와 웰빙·회복에 작동하는 경로 제시

○ 「From Signal to Practice: Demonstrating Unconditional Cash in Community」 | Robert Weishaar 외(Almost Basic, 미국)

- 지역사회 안에서 무조건 현금을 시행하고 현금과 관계·지역자원을 연결하는 시범사업 준비 경과 제시
- 신호성 캠페인을 운영 가능한 지급체제로 전환하는 과정, 신뢰 형성, 지역 파트너십의 교훈 도출

○ 「Buying Time Back: The Impacts of Unconditional Cash on Resettled Refugees in the U.S.」 | Mira Philips(펜실베이니아대)

- 재정착 난민에 대한 무조건 현금 지급이 생계비뿐 아니라 시간압박·노동선택·돌봄·정착활동에 미치는 변화 분석

○ 「The Inclusion Crisis: Exploring a Disability-Inclusive Basic Income as a Tool for Empowerment」 | Jamie Cooke(Inclusion International), Jurgen De Wispelaere(BIEN), Chloe Halpenny(퀸스대), Kendal David(기본소득청년모임)

- 장애포괄적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 바닥을 제공하되 장애 관련 추가 비용, 개인 지원, 공공서비스를 존치하는 설계를 요건으로 함
- 급여의 적정성·접근성·법적 능력·당사자 공동설계가 결여될 경우 포괄성이 형식에 그치는 위험 제기

4.2.2. 8월 21일(금)

□ 복합위기 전체 세션 2 | The Polycrisis on the Ground | 09:00-10:00

- (세션 성격) 복합위기를 총론이 아니라 원주민 가정·장애·남아공이라는 세 현장에서 각각 어떻게 발현되는지로 구체화. 사회자 Scott Santens의 순차 질의에 패널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원주민·태평양 섬 출신 가정) 보장기본소득과 밀착 돌봄의 결합 성과 | Sâhi Velasco(Hummingbird Indigenous Family Services, 미국)
 - (논지) 급여 수준이 수급자의 필요가 아니라 기존 복지 자격을 잃지 않는 상한선에 의해 결정된바, 현금의 효과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돌봄 관계와 문화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데서 발생한다는 보고
 - 산전부터 3세까지 가정방문·돌라 지원과 보장기본소득을 병행. 148가구 지원
 - 급여 월 1,250달러(연 15,000달러)의 산정 근거는 미국 세법상 연 16,000달러 증여 비과세 한도와 WIC·SNAP·TANF·주거지원 자격 유지를 위한 복지 혜택 절벽 회피
 - 미국 산모의 25%가 출산 2주 내 직장 복귀. 원주민 가정은 복귀 시점이 더 이름
 - 파생사업 「원주민 리더십」으로 육아 휴지기를 이력 공백이 아닌 자산으로 전환
 - 기본소득과 밀착 돌봄의 결합 시 모아 애착 형성이 제고되며 세대 간 트라우마 치유와 직결
- (장애 포용) 포용적 기본소득의 요건을 당사자의 공동 설계·평가 참여로 제시 | Jamie Cooke(Inclusion International)
 - (논지)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실질적 효과를 가지려면 보편적 소득 바닥만으로는 부족한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과 서비스가 함께 존재해야 하고 그 설계에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
 - UN 장애인권리협약 185개국 비준. 미국은 서명 후 미비준
 - 부족한 것은 권리의 정의가 아니라 실행이며, 종이 위의 권리는 실질적 권리가 아님
 -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한 재시설화 주장의 재등장에 경고
 - 기본소득은 만능 해법이 아닌 기반. 무조건적 기반, 장애 추가비용 인정 지원, 서비스의 3중 결합 필요
 - 기본소득 운동 내 장애 의제의 공백을 결정적 한계로 지목

○ (남아공) 기본소득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규정 | Kelle Howson(Institute for Economic Justice)

- (논지) 남아공에서 기본소득은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조치가 아니라 20년간 축적된 국가 발전 전략인바, 현재의 쟁점은 제도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재무당국이 부과하려는 구직 조건성을 저지하는 데 있다는 진단
- 복합위기라는 용어 이전부터 불평등·빈곤·실업의 삼중 위기를 논의. 지니계수 기준 세계 최고 불평등국
-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빈곤선 이하, 약 20%가 식량빈곤선 이하. 매년 1,000명 이상의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
-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확장 실업률 약 40%. 조기 탈공업화로 성장이 고용밀도가 낮은 금융·광업에 의존
- 아동·장애·노령 급여는 운영되나 근로연령 성인의 중간의 빈틈(missing middle)이 잔존
- 총수요 자극과 구조적 실업 타개라는 거시경제 효과에 논의가 집중되며 이를 다중의 기회(polyopportunity)로 규정
- 정부가 기본소득 지원 입법안을 수립 중이나 사회개발부·시민사회와 국립재무부·세계은행이 대립. 재무부는 구직 조건성 부과를 추진
- 임시 지원금의 예산 상한과 물가 미반영에 대해 헌법상 점진적 실현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소송 제기

□ 병행 세션 5 | 10:00-11:00

○ 「The Era of Surplus Has Arrived: From Trillions in GDP to Global Basic Income Through Digital Circulation」 | George Tsurtssumia

- 거시경제적 잉여를 디지털 순환 구조를 통해 세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연결하는 구상 제시

○ 「Citizens' Equity: Capital Democratization as a Policy Response to AI-Driven Labor Displacement」 | Mark Garman(UC Berkeley, 미국)

- (논지) AI 시대에 소득이 노동이 아니라 자본으로 귀속되는 이상 현금 재분배로는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바, 기업이 시장 접근권의 대가로 자본의 일부를 시민 공동기금에 예치하게 하여 소유권 자체를 분배하자는 제안
- (문제 진단) 기존 기본소득의 좌초 요인을 막대한 초기 예산 추계의 가격 충격과 정권 교체 시 예산 항목 폐지의 두 가지로 정리. 온타리오 파일럿이 후자의 사례

- (논거) AI·로봇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 설비이므로 미래 소득이 자본 소유자에게 귀속. 미국 노동소득 분배율이 54%에서 50%로 하락하고 2020~2023년 신규 부의 63%가 상위 1%에 귀속
- (구조) 시민 지분 펀드는 기업 증권을 매매 없이 장기 보유하는 패시브 국부펀드. 출생 시 1주 발행·사망 시 소멸하며 매도·양도·담보·압류·상속이 불가능한 슈퍼 주식 방식
- 배당·이자·자사주 매입 대금을 전 시민에게 균등 분배
- (재원)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조달. 기업은 해당국 상행위를 위한 사업 면허의 대가로 자본 부채의 일부를 예치하며, 영구 몰수가 아닌 무이자 대여 성격으로 환류 가능
- 예치 비율은 국가별 목표 비율과 해당국 매출 비중의 곱으로 산출
- 국가별 목표 비율은 일자리 대체 정도에 따라 중앙은행식 독립기구가 결정(대체 미미 2~5%, 온화 10~15%, 심각 25~30%)
- (효과)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 가치 희석으로 비용이 귀속. 전 세계 주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가 보유하므로 별도 부유세 없이 부유층이 부담
- 생산원가가 불변이므로 소비자 가격에 영향이 없으며, 본사 소재지가 아닌 고객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회피처 이전·이전가격 조작이 무력화
- 정부 예산 외 재원으로 조달되어 보건·교육 예산과 경쟁하지 않으며 정권 교체·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음
- 한 국가의 도입이 상대국의 도입 유인을 높이는 조율 게임으로 작동. 관세 보복과 달리 공공 자본 소유를 확산

○ 「The cost of Universal Basic Income sufficient to eliminate poverty」 | Karl Widerquist, Jack Rossbach(조지타운대 카타르)

- 미국에서 성인 연 1만 6천 달러, 아동 연 8천 달러의 기본소득과 50% 한계세율을 결합한 빈곤선 수준 제도를 모의
- 순비용을 약 7,837억 달러, 2024년 국내총생산의 2.67%로 추산. 동일 방식의 비용 비중이 1967년 9.35%에서 크게 하락
- 총지급액이 아니라 조세로 환수된 금액을 차감한 순비용으로 재정부담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논지로 제시

○ 「Waiting for Rights: Testing Charitable Food Sector Innovations Against Basic Income Guarantee Principles」 | Ben Earle 외 3인(캐나다)

- 자선 식품 부문의 혁신을 기본소득보장의 존엄·자율성·선택 원칙에 비추어 평가
- 일부 혁신이 이용자의 선택권과 존엄을 개선하되 식량불안의 근본 원인인 불충분한 소득을 변경하지 못하므로 구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함

○ 「Youth Scholars in BIEN」 | Tyler Prochazka(BIEN 청년코디네이터)

- BIEN 청년연구자 프로그램이 워크숍·연구 프로젝트·네트워킹을 통해 신진 연구자의 진입 경로를 제공

○ 「Economic Justice: Beyond the Neoliberal Antipoverty Discourse」 | Mohammad Nuruzzaman Khan(매니토바대, 캐나다)

- 빈곤을 개인의 노동시장 적응이나 표적 복지의 문제로 축소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을 비판하고 경제정의 관점의 대안 제시

○ 「Decolonization and Basic Income」 | Ethan Clark(Northwest Indigenous Council)

- 기본소득이 식민적 복지 관계를 반복하는지, 원주민 공동체의 경제적 자기결정과 탈식민화에 기여하는지를 검토

○ 「The Global Basic Income Movement: History,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 Tadashi Okanouchi(호세이대, 일본)

- 동명의 2026년 편저(호세이대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 445쪽)와 연결되는 발표
- 세계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현황·전망을 통합 정리

○ 「Analysing Educated Hope in the Basic Income Movement」 | Louis Strappazzon(배스대·UBI Lab Network, 영국)

- 기본소득 운동의 희망을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대안 탐색을 조직하는 교육된 희망으로 분석

○ 「Labor Accelerationism: Tech Workers, UBI, and the Politics of a Post-Scarcity Society」 | Matteo Rossi MacDermant(신흥기술윤리연구소, 미국)

- 기술노동자·자동화·기본소득을 포스트 희소성 사회로의 전환 정치와 연결
- 기술 진보 가속 전략과 노동자의 집단적 이해가 결합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쟁점으로 제시

- 「The AI Dividend: Who Built the Machine, Who Gets Paid, and Why UBI Has Never Mattered More」 | Ken Yang(UBI Works), Monika Viktorova(캐나다)
 - AI·자동화가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생산성 이익은 자본소유자에게 집중되는 구조 제시
 - 기본소득을 안정적 소득 바닥이자 자동화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으로 규정. 보편적 월 배당과 저소득층 보충급여의 결합 제안
 - AI 시스템의 구축 주체와 수익 귀속 주체를 묻는 분배정의 논의를 전면 배치

□ 병행 세션 6 | 11:30-13:00

- 「International Partnerships: Integrating Global Learnings into the United States Pilot Space」 | Erica Wright, Stacey Rutland(Income Movement, 미국), Neil Howard, Vibhor Mathur(배스대, 영국)
 - 해외 기본소득 실험과 운동의 교훈을 미국 파일럿 생태계의 설계·연대·정책화에 적용하는 방안 논의
- 「Bootstrapping UBI in the USA」 | Scott Santens, Deia Schlosberg, Josh Worth, Conrad Shaw(미국)
 - 미국 11가구가 약 2년 6개월간 기본소득을 수령하는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Bootstraps」 상영
 - 제도 도입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 주도로 실험·대화·조직화를 시작한 과정 제시
- 「Storytelling, Narrative Power and the Human Case for Basic Income」 | Jodi Dean, Jessie Golem, Elaine Power 외 11인(캐나다)
 - 자격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는 고정관념을 전환하기 위해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와 서사권을 중심에 배치
 - 동의·안전·보상·맥락 보존을 포함한 이야기 참여자의 권리 제시
 - 영화·사진·글쓰기·지역조직을 활용해 실증 근거와 사람의 삶을 연결하는 방법 논의
- 「Who Gets to Tell the Story? Collaborative Filmmaking as a Dignity-Affirming Methodology」 | Elina Morrison(미국)
 - 보장소득 연구에서 참가자를 촬영 대상이 아니라 이야기의 선택·제작·편집에 참여하는 공동 창작자로 대우하는 방법 제시

- 연구자 권력·동의·재현·존엄을 핵심 방법론 문제로 제기
- 「To Live, Must We Erase Ourselves?」 | Azra Rashid, 목화균·한인정·Ina Kwan(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생존이나 제도 접근을 위해 개인·공동체가 정체성이나 경험을 지워야 하는 조건을 문제로 제기
 - 기본소득과 존엄·가시성의 관계 검토
- 「It Takes Two: Guaranteed Income and Baby Bonds as Complementary Strategies」 | Amit Khanduri, Chyna Quarker(GRO Fund, 미국)
 - 참가자에게 4년간 월 500달러의 현금과 2만 달러 이상의 투자 가능 자산, 재무상담을 결합해 제공
 - 보장소득이 당장의 안정성과 선택을, 베이비본드형 자산이 장기적 부 형성의 출발점을 담당하는 보완적 설계
- 「Between 800+ and Bolsa Família: Family Benefits as a Practical Reflection on Basic Income」 | Milena Kowalska(브로츠와프경제대, 폴란드), Fábio Waltenberg(플루미넨세연방대, 브라질), Jurgen De Wispelaere(BIEN)
 - 폴란드 Family 800+는 소득과 무관하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800즈워티를 지급하는 보편급여
 - 브라질 불사파밀리아는 소득을 표적화하고 가족구성과 조건을 반영하는 급여
 - 두 제도의 보편성·표적화·조건성 차이를 통해 가족급여가 위기 시 기본소득 원리에 근접하는 정도를 비교. 행정 용이성·포괄성·재정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의 절충이 비교축
- 「Fixing Old Age Security to Tackle the Polycrisis in Canada」 | Paul Kershaw(브리티시컬럼비아대), Andrea Long(캐나다)
 - 캐나다 노령보장이 연간 약 860억 캐나다달러를 지출하면서도 약 40만 명의 노인을 빈곤선 아래에 존치
 - 부부가구 기준 감액 시작 소득을 약 18만 2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하향하는 방안 등 6개 시나리오 검토
 - 연령·연금 세액공제 조정과 결합해 재원을 취약 노인과 타 세대로 재배분하는 실용적 개혁안 제시

- 「From Pooling to Mattering: Basic Needs, Labor & Psychosocial Findings from the American Guaranteed Income Studies」 | Stacia West, Amy Castro, Nidhi Tandon, Mira Philips / 토론 Candice Dias
 - 현금의 가계 내 공동 사용 방식, 기본욕구와 노동 선택, 희망·통제감·소속감 등 심리사회적 결과를 통합 분석
 - 얼스터카운티 연구에서 소득·저축·비상대응력과 함께 물질적 안정, 선택의 여지, 자기 존재의 중요성 감각, 일부 신체·정신건강 지표의 개선 확인
 - 금전적 결과로 포착되지 않는 관계적·심리적 경로를 다지역 실험 종합으로 제시

□ 병행 세션 7 | 14:30-16:00

- 「From academic silos to public imagination: Creative approaches for sharing basic income research」 | Elaine Power(퀸스대), Elise Leong-Sit, Kendal David, Hannah Owczar(기본소득청년모임, 캐나다)
 - 연구·예술·온타리오 파일럿 참여자의 익명 인용을 결합해 학술 지식을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전환한 「Room to Dream」 프로젝트 소개
 - 인터뷰 68건을 토대로 선택·주체성·존엄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해 빈곤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응
 - 보고서 중심의 지식전달을 넘어 소책자·시각예술·소셜미디어·공동창작으로 공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방법 제시
- 「Work and Income in a Changing World: A View from Canada」 | James Mulvale(매니토바대)
 - 기본소득·경제안보·사회정의·환경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고용형태와 소득위험 변화에 대한 기존 노동연계 복지의 대응력 검토
- 「Labour's last stand in the post-labour economy」 | Ken Yang(UBI Works, 캐나다)
 - AI가 노동수요와 임금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조건에서 기본소득을 소득 바닥이자 자동화 이익의 배당으로 제시
 - 포스트 노동 경제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정치가 기본소득을 방어선 또는 새로운 협상수단으로 삼는 가능성 검토
- 「Basic income and pro-work socialism」 | David Calnitsky(웨스턴대, 캐나

다), Michael Howard(메인대, 미국)

- 기본소득을 노동의 폐지가 아니라 강제적·불평등한 노동관계를 축소하고 자율적·민주적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친노동 사회주의와 양립시키는 논증 전개

○ 「Rethinking Work」 | Liz Fouksman(킹스칼리지런던, 영국)

- 남부 아프리카 기본소득 운동이 빈곤 해소를 일자리에 종속시킬 때 정치적 상상력이 제약되는 구조 분석
- 나미비아 연구에서 기본소득 지지자조차 임금노동을 정당성·활동·웰빙과 결부시키고 돌봄 등 비임금 활동을 동등한 일로 상정하지 못하는 경향 확인
- 소득권을 고용 여부와 분리하면서도 노동에서 얻는 의미·사회적 인정·활동을 보존하는 과제 제기

○ 「Citizens, Not Clients: Basic Income and the Defence of Democracy」 | Dániel Fehér(유럽무조건기본소득네트워크)

- 헝가리 사례를 통해 경제적 의존이 권위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구조 논증
- 기본소득을 복지급여가 아니라 시민이 고용주·가족·정치적 후견에 거부 의사를 표할 물질적 능력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인프라로 규정

○ 「Democratic Backsliding and Universal Basic Income」 | Marek Kaczmarczyk(바르샤바대, 폴란드)

- 비자유민주주의에서 기본소득이 양면적으로 작동. 집권세력이 사회적 평화를 매수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현 체제를 고착시키고, 보편적 권리와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면 시민 동원과 제도 현대화를 촉진
- 기본소득의 민주적 효과가 제도 자체보다 도입 담론·헌정 장치·시민사회 역량에 좌우되는 조건 비교

○ 「Enduring Tales of the Undeserving」 | Evelyn L. Forget(매니토바대, 캐나다)

- 빈곤층을 지원 자격 유무로 분류하는 오래된 서사가 정책과 대중 인식을 비인간화하는 구조 비판
- 개인의 사정을 심사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대신 무조건적 현금과 존엄을 신뢰의 출발점으로 삼는 급진적 신뢰 접근 제시

- 「AI, Income Inequality, Poverty and Basic Income in Canada」 | Nicole Kudor, Jessica Allen, Tracy Smith-Carrier(로열로즈대), Louise Adongo(캐나다)
 - AI 확산이 일자리·임금·빈곤과 기존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경로 및 기본소득의 소득안전망 기능 검토
- 「Shifting from Consumer to Commons: A Practitioner's Strategy for Basic Income and Food Systems」 | Ben Earle(캐나다)
 - 자선 식품 프로그램의 시장형 혁신이 선택과 존엄을 높이더라도 불충분한 소득이라는 식량불안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함을 논증
 - 식품을 개인 소비와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보장하는 커먼즈로 전환하고 기본소득을 그 물질적 기반에 배치하는 실천전략 제시
- 「Book Launch Panel: Basic Income as Policy Instrument for Regions in Crisis」 | Marc Doussard(일리노이대), Jurgen De Wispelaere(BIEN), Fabienne Hansen(프라이부르크대), Amy Castro(펜실베이니아대), Diana Bashur, Tom Cooper, Daniel Weinstock(맥길대)
 - 경제쇠퇴·재난·이주 또는 행정역량이 취약한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위기대응 정책 수단으로 설계·평가한 사례 비교
- 「The Local Welfare State of Maricá, Brazil: a pathway to real freedom for all?」 | Fabio Waltenberg, Patrick Dias(플루미넨세연방대, 브라질)
 - 마리카는 지역화폐 몼부카로 지급하는 상시 현금이전, 지역은행, 소액금융, 무상 교통, 학생급여, 비공식노동자 지원, 주권기금을 결합한 지방 복지 생태계 구축
 - 2023년 확대 이후 현금이전 대상이 주민의 약 절반에 도달. 장기 혼합방법 연구로 개인·가구·지역경제 효과 추적
 - 소득 증가를 넘어 실제 선택가능성·지역경제 참여·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의 제공 여부를 평가 질문으로 설정

□ 병행 세션 8 | 16:30-17:30

- 「From Reaction to Renewal: Basic Income as Social Infrastructure in an Era of Permacrisis」 | Ben Earle, Akuah Frempong, Nathan Gardner(더럼 지역 빈곤대응 프로그램, 캐나다)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빈곤 경험 당사자가 함께 상호 연결된 빈곤 요인에 대응하는 실행 중심 체계 공동 설계
 - 위기 발생 시마다 임시 구호로 반응하는 방식에서 기본소득을 지속적 사회 인프라로 구축하는 전환 논의
- 「A Tale of Two Trajectories: Maricá and Niterói's Municipal Basic Income Programs Compared」 | Jurgen De Wispelaere(BIEN), Patrick Dias, Fabio Waltenberg(브라질), Tomás Paes de Carvalho(Equal Right), Lindsay Stirton(서식스대)
- 코로나19 당시 상시 시민기본소득과 지급 인프라를 보유한 마리카는 급여를 신속히 확대·축소한 반면, 니테로이는 긴급급여를 신설하며 등록·지급체계를 구축
 - 니테로이의 아라리보이아는 이후 상시 지역화폐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2025년 기준 5만 4천 가구 이상과 수천 개 지역업체를 포괄
 - 유사한 지방 현금정책도 시작점·재정역량·제도 지속성에 따라 위기대응과 장기 궤적이 분화
- 「Impact Evaluation Of A Program To Reduce Informality in Maricá, Brazil」 | Patrick Dias, Fabio Waltenberg(브라질)
- 비공식노동자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노동시장 비공식성 감축 효과를 영향평가
- 「Estimating the multiplier effect of social assistance spending in South Africa」 | Siyanda Baduza, Kelle Howson(경제정의연구소, 남아공)
- 저소득 가구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사회보조금이 지역 수요·소상공인 매출·생산·고용으로 재순환하는 경로 제시
 - 추가 경제활동과 세수로 초기 재정지출 일부가 환류하는 승수·재정환류 경로 강조
- 「The Nest Documentary: Guaranteed Basic Income Program by Hummingbird IFS」 | Sâhi Velasco(미국)
- 원주민 가족의 애착·문화·공동체 연결과 역사적 트라우마 치유를 중심에 둔 보장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로 기록
- 「Experimental Tools for a Revolution of the Imagination」 | Elisha

Rubacha, Joëlle Favreau(피터버러, 캐나다)

- 기본소득을 주거·안전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논의
- 영화 상영과 패널로 온타리오 파일럿의 생활 경험을 활용해 자격 서사를 전환하고 지역연대를 형성한 사례 제시

○ 「Money as Medium, Money as Politics: Digital Currencies, the War on Cash, and the Contested Definition of Basic Income」 | Julio Linares(BIEN)

- 화폐를 중립적 지급수단이 아니라 사회관계·권력·가치판단을 구성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규정
- 디지털화폐와 현금 축소가 접근성·감시·통제·지역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급 방식의 요건을 문제로 제기

○ 「Integrating Narrative and Empirical Rigor: The Role of Politically Purposive Samples in Guaranteed Income Trial Design」 | Amy Castro, Monique Perry

- 효과 측정과 함께 공적 서사 변화를 명시적 목표로 두고 혼합방법 연구와 대중참여를 결합하는 설계 제시
-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선택한 정치적 목적 표본을 정량연구에는 포함하되 선택편향이 문제되는 정성분석에서는 구분하는 원칙 명시

□ BIEN 다큐멘터리 시사 | 17:45-20:00

○ 「The Elephant Run: Inside the Basic Income Movement」 | 감독 Šimon Pešta

- BIEN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헌신·열정을 조명한 신작 다큐멘터리. 창립 40주년 기념 제작
- 브라질 마리카와 니테로이에서 촬영해 기본소득이 지역운동과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 수록

4.2.3. 8월 22일(토)

□ 병행 세션 9 | 11:15-12:45

- 「Disrupting deservingness: A conversation on basic income requirements for marginalized and criminalized communities」 | Kendal David, Jennie Pearson, Delilah Brae, Hannah Owczar(캐나다)
 - 기본소득의 자격요건과 수급 자격 판단이 주변화·범죄화된 집단을 배제하고 낙인화하는 구조를 대화 형식으로 검토
- 「Supporting Universal Basic Income Advocacy through civil society coalitions and social movements」 | Christopher Nwafor(남아공), John Michael(인도), Jose Brito(브라질), Hoodah Abrahams-Fayker
 - 남아공·인도·브라질 시민사회 연합이 네트워크 구축, 공동 학습, 캠페인과 사회운동의 연결을 통해 기본소득 옹호 기반을 확장한 경험 비교
- 「Accidental Basic Income for Artists: Cultural Policy, Social Welfare, and Creative Labour」 | Sam Whiting(RMIT대, 호주)
 - 팬데믹 전후 예술가 기본소득이 문화정책·사회복지·창작노동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등장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
 - 예술가 대상 소득보장이 보편적 기본소득과 중첩·분기하는 지점 및 창작노동의 불안정성을 정책 문제로 재구성하는 방식 분석
- 「Basic Income for the Arts: A Golden Ticket that recognises status and artistic values?」 | Jenny Dagg(메이누스대, 아일랜드)
 - 아일랜드 예술가 기본소득 수급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 위탁 질적 연구 수행
 - 참여자가 재정 불안 감소, 창작 시간·자율성 증가, 사회적 인정의 경험을 보고
 - 예술가 지위의 인정, 선정 방식과 가치 판단이 초래하는 한계를 함께 제기
- 「Should basic income schemes be used to support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The case of Ireland's Basic Income for the Arts scheme」 | Andrew White(킹스칼리지런던, 영국)
 - 아일랜드가 2022년 착수한 예술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긍정적 평가를 토대로

제도를 상설화한 과정 검토

- 부문 특화 기본소득이 불안정 노동을 완화하는 적절한 수단인지, 보편 제도와 부문별 지원 사이의 정책적 정당화가 무엇인지 검토

○ 「Simulating Life in Poverty in Canada: Exploring the Utility of Poverty Simulation Tools」 | Tracy Smith-Carrier(로열로즈대), Lea Tufford(알고마대), Jessica Allen(캐나다)

- 기존 대면 빈곤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참여자의 빈곤 관련 태도는 개선되었으나 실제 행동 변화는 제한적
- 저소득 경험자를 정서적으로 자극하거나 재주변화할 위험도 확인
- 참여행동 연구를 통해 가상현실형 시뮬레이션을 개발·평가하며 인식 전환 도구의 효과와 윤리적 한계를 함께 검토

□ 병행 세션 9.5 | 11:15-12:45 | 조세 기반 소득보장과 부의소득세

○ 세션 개요

- 조세 체계를 통해 현금을 전달해 온 미국·대만·캘리포니아의 경험과 한국의 설계안을 나란히 배치하고, 종합토론에서 보편성 자체를 쟁점화. 발표 4건 후 약 25분간 토론 진행

○ 「More Than a Dollar Amount: 콜로라도 가족부담완화 세액공제의 혼합방법 증거」 | Leah Hamilton, Lila Stith(애팔래치안주립대), Stephen Roll, Guangli Zhang(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미국)

- (논지) 조세 기반 현금정책은 도달률이 높아도 수급자가 지급 시점을 알지 못하면 생활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는바, 적정성과 접근성에 더해 예측가능성을 독립된 설계 요건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
- 약 30만 9천 가구가 8억 4,200만 달러 수급. 적격가구 수급률 약 93%
- 제도를 인지한 비율은 12% 수준. 세금신고 시 자동 산입 구조로 인지 없이도 수급이 성립
- 아동빈곤 감소효과는 해당 세액공제 단독 18.7%, 3개 세액공제 합계 약 32%
- 예고 없이 도착한 급여는 밀린 청구서 상환에 소진. 지급 시점을 사전 인지할 경우 주거·교육 등 반복지출로 전환
- 효과적 현금정책의 3요건을 적정성·광범위한 접근성·예측가능성으로 제시. 예측가능성은 기본소득 논의에서 조명이 부족한 요건

- 신고 자격이 없거나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층에는 미도달

○ 「Negative Income Tax as a Policy Response to Structural Labor Market Displacement」 | Stacia West(테네시대), Nidhi Tandon, Amy Castro(펜실베이니아대, 미국)

- (논지) 기존 보장소득 실험이 축적한 증거를 토대로, 빈곤선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가능 수준을 기준선으로 삼고 무급 돌봄노동과 생애사건에 반응하는 부의소득세를 설계해 네브래스카에서 검증하겠다는 구상
- 미국 보장소득 연구 11개 지역 결과에서 식품안정성 개선이 가장 일관되고 재정 안정성 개선이 우세. 두 효과 모두 지급 종료 후에도 유지
- 고용은 대부분 무효과. 주거비 부담은 지급 종료 6개월 후 음의 결과가 증가
- 「An NIT for All」은 급여 기준선을 기존 제안의 연방빈곤선 50~75%에서 보충 빈곤선 100% 이상으로 상향
- 연 1회 세금신고 시점과 생애사건 발생 시점에 산정하며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보강
- 무급 돌봄노동과 공식 노동시장 참여능력의 차이에 반응하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접목을 설계 전제로 명시
- 검증을 위한 네브래스카 부의소득세 실험 진행(N=750, 2개 코호트, 24개월 월 지급)

○ 「Emerging Basic Income Schemes in an Era of Polycrisis: Comparative Lessons from Tech-Policy Laboratories in Taiwan and California」 | Yu-Ling Chang(UC Berkeley, 미국)

- (논지) 기본소득은 완성된 모형으로 수출되지 않고 각국의 복지제도·정치연합·행정 인프라를 통해 번역되는바, 확산의 관건은 파일럿의 성과가 아니라 그 번역을 감당할 제도적 조건이라는 논지
- 복지국가가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기여형 사회보험과 자산조사형 부조의 2층 구조를 형성. 복합위기가 그 전제를 훼손
- 캘리포니아는 시민-정책 경로(스톡턴 SEED 125명·월 500달러·24개월)와 기술 재원 연구 경로(OpenResearch 1,000명·월 1,000달러·36개월)가 병존
- 주 재원 파일럿(2021년 3,500만 달러 승인, 월 600~1,200달러, 약 2,000명)은 위탁보호 종료 청년·임신부 등으로 대상을 표적화하여 기존 범주형 복지체제로 편입

- 대만은 2013~14년 정부 위탁연구와 2017년 청년 주도 옹호가 별개 경로로 전개. UBI Taiwan 파일럿은 월 10,000 대만달러·12개월 규모
- 정부 보편 현금지급의 명분이 경기부양에서 세수 환급을 거쳐 AI 배당으로 이동. 수급률은 99%를 상회
- 신흥 제도가 기존 복지를 대체하지 않고 그 위에 층으로 얹히는 양상 확인
- 확장과 지속의 조건을 근거 축적·옹호연합·급여 보호장치·행정역량·지속가능 재원으로 정리

○ 「Beyond Universality: The Rationale for a Negative Income Tax-Type Basic Income」 | 유종성(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팀)

- (논지) 완전 기본소득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부의소득세형 급여를 환급형 세액공제로 집행하면 재정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빈곤과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논증
- 급여 수준은 성인이 평균 개인소득의 15%(공유부 배당 5% + 부의소득세형 10%), 아동·노인이 25%(5% + 20%)
- 순재정비용은 국민총소득의 0.05%. 보편적 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한 패키지 기준 0.3%
- 지니계수 0.323에서 0.288로, 패키지 적용 시 0.273으로 개선
- 상대빈곤율 14.9%에서 12.2%로, 패키지 적용 시 11.5%로 개선

○ (종합토론) 보편성 유지 여부를 둘러싼 쟁점 대립

- (논지) 보편성을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재정적 효율을 앞세운 표적화론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앞세운 보편론이 정면으로 충돌한바, 양측 모두 상대의 근거를 무력화하지 못한 채 논쟁이 지속
- (보편성 재검토론) 고정 예산에서 보편 이전은 빈곤 감소력이 희석되므로 universal 용어의 폐기가 필요 | 류근관
- (정치적 지속가능성론) 미국에서 지지가 가장 높은 제도는 노령 사회보장연금 등 보편 제도이며, 오히려 비보편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지속 불가 | Leah Hamilton
- (규범적 지향론) 보편성은 북극성에 해당하므로 포기 대상이 아님 | Stacia West
- (전제 재구성론) 자립(self-sufficiency) 개념 자체의 재고가 필요 | Yu-Ling Chang

- (부분 기본소득론) 완전 기본소득이 아닌 부분 기본소득을 제안하며 기존 사회부조를 유지하므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 | 유종성

□ 병행 세션 10.1 | 13:30-15:00 | 한국 기본소득 청사진 출판기념 패널

○ (세션 성격) 저서 『UBI from Idea to Reality: A Blueprint for Basic Income in Korea』를 국제 논평자 앞에 놓고 한국형 소득보장 청사진의 이론적 정합성·재정 실현가능성·타국 이전가능성을 검증. 저자 3인 발제 후 논평 4건, 저자 응답, 플로어 질의 순 진행. 사회 이수미

○ (저자 발제) 저서 총론 | 유종성 교수

- (논지) 세 갈래 급여를 결합한 이유는 이상적 설계를 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기존 조세·급여 체계와 경로의존성 안에서 실제로 입법 가능한 경로를 찾기 위해서임.
- * 완전 기본소득을 구현하려면 현행 누진세율(6.6~49.5%)과 사회보험료 위에 40%p의 추가 과세가 필요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함. 따라서 사회부조를 가능한 한 대체하면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제안하며, 장기적 재정지속성을 위해 재정중립적으로 설계가 필요함.
- NIT형 기본소득: 환급형 세액공제로 연 1회 소득세 신고 시 집행. 대다수에게 빈번한 소득조사가 불필요. 전년 대비 소득이 급감해 다음 해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만 월·분기 단위 신고를 허용하며,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에서 선지급과 연말정산으로 처리 가능
- 공유부 배당: 토지보유세에 근거한 토지배당 + 탄소세 + 재생에너지 이익 배당. 합계 1인당 GNI의 약 3%, 평균 개인소득의 약 5% 수준. 아울러 납세자·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기본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전 국민에게 환급
- 보편적 EITC: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미국과 같이 점증-평탄-점감 구조임. 제안은 이를 개인 단위 보편 EITC로 전환하며 근로소득공제 축소분으로 주로 조달. 대부분의 노동자는 현행 대비 순수혜이고 최상위 소득 구간만 순부담
- 2065년 총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의 30% 수준에 이르나 노년부양비 100% 초과 전망을 감안하면 수용 가능
- 인구의 약 70%가 현행 제도 대비 순수혜. 아동기 순수혜와 성인기 순기여의 생애 내 수평적 재분배와 계층 간 수직적 재분배가 동시 작동

○ (저자 발제) Common Wealth Dividend(공유부 배당의 분류체계와 재원 설계)

| 강남훈

- (논지) 기본소득 재원을 일반 조세가 아니라 공유부 지대에서 조달하면 과세가 배당과 결합되어 오히려 정치적 저항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논지
- 공유부를 자연적 공유부(토지·생태계)와 사회적 공유부(지식·데이터·인프라)로 구분
- 자연적 공유부는 배제성·경합성이 아니라 재생성·희소성을 기준으로 분류
- 풍부한 공유부는 개방 접근으로 독점지대를 제거, 재생가능·희소 자원은 지대를 전액 환수해 연간 배당, 재생불가·희소 자원은 영구기금에 적립해 수익만 분배
- 토지보유세·탄소세는 배당과 결합할 때 정치적 저항이 완화. 세수 균등 분배 시 시민 다수가 납부액보다 많이 수령
- 탄소세는 감축 성공 시 세수가 소멸하므로 재생에너지 지대가 그 감소분을 보완. 「햇빛소득마을」이 실행 사례

○ (논평) 제도적·경제적·정치적 조건에 따른 경로의 분화 | Philippe van Parijs(UCLouvain, 벨기에)

- (논지) 어느 나라에 무엇이 최선인지는 외부자가 답할 수 없는바, 제안의 타당성은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 단순화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로 판정된다는 평가 기준 제시
- 취약계층 악화 방지와 복잡성 최소화가 상충. 체계를 단순화할수록 오히려 복잡성 도입이 불가피
- 공유부 배당·부의소득세·보편적 근로장려세제의 결합을 복잡하되 타당한 설계로 평가
- (질의) 공유부 배당이 환급형 세액공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
- (질의) 개인 단위 원칙이 무소득 배우자 수급, 한부모 가구 손실, 고학력층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 (질의) 지역 간 생활비 차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도시지역 주거급여 확대의 필요성

○ (논평) 총서 편집자로서 영어 출간의 의의 | Karl Widerquist(조지타운대 카타르)

- (논지) 국가 사례 연구가 영어로 출간될 가치는 그 나라의 성취를 알리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나라가 이전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하는 데 있는바, 이 저서가 그 기준을 충족했다는 평가

- Palgrave Macmillan 총서 「Exploring the Basic Income Guarantee」의 32 번째 도서
- 영어판의 가치는 타국이 한국 사례에서 배울 바를 제시하는 데 있음
- 기존 조세·급여 체계와의 접목을 면밀히 연구한 성과로 평가. 대만에서 동종 저술 계획 제기

○ (논평) 세 모듈과 40년 논쟁의 세 갈래의 대응 | Almaz Zelleke(뉴욕대 상하이)

- (논지) 이 저서의 기여는 새로운 기본소득 모형을 제시한 데 있지 않고 기존 사회 정책·정치 지형과의 접합이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통상 생략되어 온 작업을 수행한 데 있다는 평가
- 규범적 논증, 국가별 정치전략,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의 3요소를 한 권에 결합한 점을 성취로 평가
- 공유부 기금은 자원배당, 부의소득세형 기본소득은 부의소득세, 보편적 근로장려 세제는 참여소득의 변형에 각각 대응
- 국부펀드가 이미 존재하는 한국에서 공유부 논리의 접근성이 높음
- 기존 사회정책 맥락과 정치 맥락을 함께 고려한 점을 최대 기여로 지목
- (유보) 출산율 효과 주장에는 신중이 필요. 경직된 노동시장과 경쟁적 교육체계가 잔존 요인

○ (논평) 기본소득에 선행하는 4단계 정책 패키지 | 류근관(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논지) 보편급여는 동일 예산에서 빈곤 감소력이 희석되는바, 행정자료 연계와 통합 측정으로 취약층을 정확히 식별한 뒤 남는 위험만 표적화하는 절차가 기본소득에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
- 동일 예산 기준 순수 표적형 부의소득세는 빈곤율을 30%에서 0%로, 보편형은 30%에서 25.5%로 조정
- 기본 데이터(행정자료 연계), 기본 측정(통합 측정치), 기본 훈련·자립(평생 재숙련·자산 유동화), 기본 집행(잔여 위험 표적화)의 4단계가 선행 조건
- 정책 목표를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표적형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 소득지원만으로는 역량 저하를 보전할 수 없으므로 평생학습·재숙련 및 데이터·컴퓨팅·AI 모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 (저자 응답) 모듈 결합의 단순화 효과와 순수 표적형의 한계 | 유종성·이승주

- (논지) 순수 표적형은 이론적으로 효율적이거나 한국 현실에서는 근로유인 소멸·소득 은닉·가구 위장분리를 유발하는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편 요소가 필요하다는 반론
- 세 모듈이 각각 한국의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화. 경로의존성을 감안하면 단일 프로그램은 실현 불가하므로 점진적 접근 채택
- 순수 표적형은 근로유인 소멸과 소득·자산 은닉 유인을 발생시킴
- 빈곤층의 10%가 생계급여 미수급 상태이며 급여 수급을 위한 가구 위장분리가 실재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급여로 충분성을 확보하며, 모형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저서에 수록

○ (플로어 질의) 보편 대 표적, 부의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의 중복, 탈식민화 관점

- (프랑스) 지원받는 사람들이라는 범주가 형성되면 언론·정치 담론에서 도구화되므로 보편성을 지지. 다만 선지급 후회수 방식의 재정 회계 문제는 미해결
- (설계) 부의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조건 유무만 다른 유사 제도인바 병행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 (관점) 두 제도의 결합을 아시아 탈식민화를 위한 연대 형성의 계기로 해석

□ 병행 세션 10 | 13:30-15:00 | 기타

○ 「Building Collective Power: Basic Income as a Tangible Connector between Movements」 | Janet Patterfung, Sheila Regehr 외(캐나다)

- 기후위기·소득불안·주거·식량·인종적 불평등을 지역 대화로 연결해 온 경험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운동 간 공동 요구와 집단적 힘의 연결고리로 제시

○ 「Main Street as Basic Income Infrastructure: Why the BI Movement Needs a Small Business Strategy」 | Aaron Binder(Better Way Alliance, 캐나다)

- 지역 소상공인을 고용·서비스·지역 소비가 만나는 메인 스트리트 인프라로 규정
- 기본소득 운동이 임대료·고정비·일자리 유지를 다루는 소상공인 전략과 연대할 필요 제기

○ 「Unconditional: Stories from the Denver Basic Income Project」 | Gwen Battis(미국)

- 덴버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여자 3인이 노숙 상태에서 안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기록한 참여자 중심 영화
- 현금이 지출액뿐 아니라 선택·관계·장기 계획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제시

○ 「Anti-poverty Strategies for the GBLI Agenda」 | Charlie Atkinson, Hanna Jalal, Margaret Little(퀸스대), Tony Biddle(캐나다)

- 기본소득을 단독 해법이 아니라 빈곤 당사자 참여, 충분한 급여수준, 주거·서비스와의 결합, 정치적 연합 구축을 포함한 반빈곤 의제로 구체화

○ 「New Histories of Basic Income」 | Malcolm Torry(배스대), Guido Erreygers(안트베르펜대, 벨기에), Will Glovinsky(빙엄턴대, 미국)

- 기본소득의 계보를 토머스 모어·토머스 페인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직선적 역사가 아니라 잊힌 제안과 당대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재발굴
- 1848년 브뤼셀 제안, 영국·미국의 논쟁, 공유자원 보상 논리를 통해 현재의 기본소득 개념이 복수의 역사적 갈래에서 형성되었음을 제시

○ 「Foreign Aid Basic Income from a Social Accounting Matrix Perspective」 | Tobias Jäger(프라이부르크대, 독일)

- 해외원조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때 가계·기업·정부·산업 간 소득 흐름과 간접효과의 파급을 사회계정행렬로 추적

○ 「Universal Basic Income Readiness Index: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22 Countries」 | Emilija Webster, Laima Okunevičiūtė-Neveauskienė, Daiva Andriušaitienė(빌뉴스공대, 리투아니아)

- 경제발전 단계별 기본소득 시행의 경제·사회적 전제조건을 문헌과 통계자료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다차원 지수로 확장
- 22개국의 재정·노동시장·사회보장·사회적 여건 비교

□ 병행 세션 11 | 15:30-17:00 | 기타

○ 「Women, Basic Income & the Polycrisis: A Human Rights Approach to Climate Resilience」 | Josephine Grey, Andrea Balfour(캐나다)

- 빈곤·식량불안·성불평등·기후정의를 국제 인권 의무와 연결하고 충분한 기본소득에 이르는 권리 기반 경로 요구
 - 복합위기가 여성과 성별화된 돌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소득안정을 기후 적응과 공동체 회복력의 기반으로 제시
- 「From Policy Promise to Operational Reality: Why Basic Income Must Follow a Delivery Framework」 | Ping Xu(미국)
- 공공서비스 성과를 예산·절차 준수가 아니라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된 가치와 행정 마찰의 비율로 측정할 것을 제안
 - 기본소득도 법제화나 지급 약속만으로 성공을 판정할 수 없으며 도달률·시간부담·인지부담·실제 결과를 사전 설정한 전달 프레임으로 검증할 필요 제기
- 「Design and Basic Income」 | Hugo Voss(OCAD대, 캐나다)
- 기본소득을 시민의 시간·공간·수단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로 규정
 - 경제모형에 더해 이용자의 삶, 서비스 경험, 시스템 지도와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설계하는 접근 제시
- 「Designing Basic Income to Last: Lessons from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 Austin Baird(알래스카대 페어뱅크스, 미국)
- 1982년부터 지속된 보편적 배당의 존속을 좌우한 기금 구조와 지급공식 분석
 - 의회 예산권, 공공서비스 재원과 배당액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의 설계 교훈으로 정리
- 「How Basic Is Basic Income? Contrasting Economic, Social Rights and Administrative Approaches」 | Jurgen De Wispelaere(BIEN), Leticia Morales(칠레 아우스트랄대)
- 기본소득을 단일 이상형으로 다룰 경우 실제 제도가 분화하는 설계 차원과 행정 구현의 위험을 간과
 - 급여수준·보편성의 경제적 기준, 존엄과 사회권의 기준, 전달·접근·집행의 행정 기준이 기본소득다움을 상이하게 판정하는 지점 비교
- 「Realising the UBI ideal: a policy blueprint for XXIst century welfare states」 | Telemaque Masson-Recipon Renaudin(사회과학고등연구원, 프랑스)

- 기본소득을 균일 현금이전이라는 좁은 정의와 개인 자율성의 물질적 조건을 보편·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넓은 이상으로 구분
- 현금, 조세·부의소득세형 장치, 보편서비스와 기존 사회권을 배열하는 21세기 복지국가 청사진 제시

○ 「A Critical Generation: What the Cash Movement Gains by Including Teenagers」 | Talia Livneh, Jonathan Johnson(Fifty·Rooted Schools Foundation, 미국)

- 고등학생에게 주 50달러를 40주간 무조건 지급한 무작위시험 수행
- 학생들이 주로 기본 필요와 미래 계획에 지출. 출석은 학기당 약 1.23일 증가하고 평점의 유의한 변화는 미발생
- 청소년을 성인 가구의 부속이 아니라 직접 수급자이자 정책 설계 파트너로 포함할 때 현금운동이 확보하는 재정역량·자기효능감·세대적 정당성 제시

○ 「A systematic review of health effects of Universal Basic Income and concept mapping research priorities ahead of a Norwegian trial design」 | Robert Froud(크리스티아니아대, 노르웨이·워릭대, 영국)

- 기본소득 및 유사 제도의 건강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노르웨이 실험설계에 앞서 연구 우선순위를 개념지도 방식으로 도출
- 조건·제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시험 속성 선택, 핵심 결과지표와 실행가능한 실험 설계를 주요 과제로 제시

○ 「Maddening Basic Income Models: Challenging Ableist and Sanist Framings of Basic Income Through a Critical Disability Lens」 | Marina McKenzie(원저대, 캐나다)

- 노동능력·자립·합리적 선택을 정상성의 기준으로 삼는 기본소득 모델이 장애인과 정신건강 당사자의 추가비용과 경험을 배제하는 구조 비판
- 당사자 중심의 충분한 소득 및 서비스 보장 요구

○ 「Universal Basic Income and Marginalised Communities: Bridging Utopia with Social Realities | A Systematic Review」 | Ionut Cioarta(글래스고대, 영국)

- 로마 공동체가 고용·주거·보건·교육·복지에서 겪는 구조적 배제 속에서 기본소득

의 가능성과 위험을 당사자·전문가 면접으로 분석한 선행연구 수행

- 관료적 장벽·정부 불신·복지의존 낙인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
- 체계적 문헌고찰로 범위를 확장해 해방의 약속과 실제 제도 접근성·차별·보완서비스 사이의 간극 종합

○ 「Pilots, Evidence, and the Path Forward: Reassessing Unconditional Cash Transfer Experiments in an Age of Polycrisis」 | 이수미(라벤대), Michael Lewis(뉴욕시립대, 미국)

- 다수의 현금 시범사업이 소규모·단기이며 기본소득의 보편성·충분성·영속성을 모두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 지적
- 복합위기 시대에 일반화 가능한 결과의 범위와 향후 실험·정책 전환에 필요한 증거를 재평가

○ 「Umbrella-review of 55 Basic Income Experiments: Results of Main Tendencies」 | Etienne Bertet(MFRB, 프랑스)

- 기본소득 실험 55건을 상위 수준에서 종합해 노동, 빈곤·재정안정, 건강·웰빙 결과의 공통 방향 정리
- 대상·지급액·기간·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비교의 한계 제시

□ 병행 세션 11.6 | 15:30-17:00 | 한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세션 개요

- 정책 담당·평가 설계·평가방법론·현장 분석·확산 전망을 5인이 분담해 한국 사례를 하나의 완결된 정책 사이클로 제시. 좌장 개회 후 강동윤·김상효·류근관·정문수·강남훈 순으로 발표

○ (정책 현황) 시범사업 추진 경과와 초기 성과 | 강동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 (논지) 농어촌 기본소득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인구 감소가 서비스 축소를 부르고 다시 유출을 낳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지역정책인바, 2028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근거를 축적하는 단계라는 설명
- 69개 인구감소지역 고령화율 38.8%로 전국 시군구 평균 20.8%를 크게 상회. 2020~2025년 인구 6.0% 감소
- 인구 3,000명 미만 읍면이 2000년 458개(전국의 32%)에서 2025년 731개

(52%)로 증가

- 주민 감소에서 서비스 폐쇄, 정주여건 악화, 추가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차단을 사업 목적으로 설정
- 2026~2027년 2년간 51만 명 대상. 2026년 예산 5억 3,300만 달러, 국비 40%·도비 30%·군비 30% 분담
- 곡성·신안·연천·정선·옥천·청양·순창·장수·영양·남해 10개 군 선정 후 2026. 6.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진안·무주 7개 군 추가
- 30일 이상 거주 국민에게 거주지 발행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처는 지역 등록 가맹점, 유효기간 발행 후 3개월
- (초기 성과) 선정 이후 대상지 인구 4.9% 증가, 신규 등록 가맹점 13.8%·신용카드 이용 16.4% 증가, 긍정 보도 10.1%p 증가·부정 보도 14.8%p 감소
- (향후 계획) 2026년 하반기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 2027년 근거기반 정책 수립, 2028년 본사업 전환

○ (평가 설계) 한계소비성향을 첫 고리로 하는 증거체계 |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논지) 무작위 배정이 없는 조건에서도 신뢰할 만한 평가가 가능한바, 그 출발점은 지급액이 실제로 새로운 소비를 창출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넓은 성과로 나아가는 순서를 지키는 데 있다는 설계 원칙
- 전국 단위 보편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정 군 내부의 보편 지급이며, 장소·가맹점·사용기한 규칙이 처치의 일부를 구성
- 무작위 배정 부재, 정책 발표 이후의 기준선 설정, 인접 군 파급을 제약으로 명시. 사전추세 검정·강건성 점검·복수 자료원 교차 확인으로 대응
- 정책 목적인 삶의 질·지역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으로 가는 첫 측정 고리를 추가 소비로 설정하고 한계소비성향을 우선 추정
- 증거체계 3종은 지역 행정·통계·민간 데이터, 6개 웨이브 가구패널, 질적 현장조사로 구성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자 30여 명이 4개 분과로 참여하는 조율된 국가 평가로 운영
- 가구패널 1차는 10개 시범군과 7개 비교군의 약 6,300가구(시범 3,700, 비교 2,600)
- 비교군 선정은 인접 군 배제, 52개 지역지표의 관련도순 정렬, 자기조직화지도와 마할라노비스 거리 적용, 지역 전문가·공무원 검토의 4단계로 수행

- (특수 주제) 지역화폐의 현금등가 가치를 측정해 수급자 측 후생 손실을 파악하며, 신뢰·독재자·공공재 게임과 주사위 보고 과제 4종을 1·3차 웨이브에 반복 적용
- (초기 기술통계) 10개 군 인구 319,005명에서 334,904명으로 5.0% 증가, 가맹점 14,253곳에서 16,475곳으로 15.6% 증가
- 2026. 2. 26.~6. 28. 지역화폐 사용액 2,097억 원 중 소매·음식점업 68.2%, 면 지역 사용 47.0%
- (산출 일정) 1·2차 웨이브 분석 2026. 11. 착수, 1·3차 비교에 따른 1년 효과 2027. 5.부터 산출

○ (평가방법론) 위약 상호작용 대비 처치효과 우위를 검증하는 일반화 이중차분 | 류근관(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논지) 이중차분 추정치는 처치효과와 지역 고유의 추세를 구분하지 못하는바, 통제집단과 사전기간을 분할해 만든 위약 항들보다 처치항이 확실히 우월한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제안
- 시범사업을 전 지구적으로 표적화되 지역 내에서는 보편적인 장소기반 사회실험으로 규정
- 표준 이중차분은 처치효과와 비처치효과를 하나의 계수로 압축하므로 비처치 상호작용이 작을 때에만 신뢰 가능
- 통제집단과 사전 기간을 각각 분할해 2×2 를 3×3 진단 행렬로 확장하고, 처치 효과의 유의성보다 비처치 상호작용의 영(零) 여부를 선행 검증
- 진단지표 4종은 최대 위약항 대비 처치항 비율(R), 부트스트랩 우위 비율(TD), 최종 생존 비율(TF), 최대 별점 배수(M^*)
- 통과 기준을 $R > 1$, $TD \cdot TF$ 90~95% 이상, $M^* > 1$ 로 설정
- (적용 결과) 캘리포니아 담배규제 연구는 통과, 최저임금 연구(Card·Krueger, 1994)는 소형·중형 표본에서 미통과

○ (지역사회 영향) 주민패널과 전입자 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 분석 | 정문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논지) 농촌 지역에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실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지역 애착은 증가하지만, 지역사회조직 참여 의사는 하락하는 비대칭적 양상으로 드러남. 이는 재정자본이 사회자본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아직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함.

- 분석틀 3종은 지역사회자본(재정자본의 타 자본 전환), 제도적 두께(조직 밀도), 장소정체성(소속감)으로 설정함.
- 한국 농촌재생 실천방향이 지역조직화, 인적자본 확충, 시설 확충, 소득 향상의 단계를 밟아온 것과 달리, 기본소득은 최종자본을 선투입하는 역방향 경로로 작동함.
-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초기조건을 형성하는 영역을 국가전략 및 정책 설계, 정책전달체계, 공론장과 정치적 논쟁, 지역사회 영향으로 제시하고, 네 번째 지역사회 영향 부문에 분석을 집중하고 있음.
- (주민패널 1차 조사 결과, 수혜지역 약 3,700가구 대상, 2026. 6.) 소속감 7.9%p, 거주계획 5.3%p 상승, 활동참여 4.6%p, 마을사업 참여의향 4.6%p 하락하는 경향임, 주민패널 행동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나눔 의향이 감소함.
- 재정자본이 지역애착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참여 및 조직 활동 의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관찰되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됨.
- (전략적 고려사항)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의 판단기준에 맞춘 제도 설계 및 기준선 설정 필요, 지역사회 및 조직 참여 의향에 대한 실험 필요, 농촌 지역 내의 읍면 지역 소비수요 및 서비스 격차 대응 필요 등 제기

○ (확산 전망) 지역 자체 재원 확보를 통한 본사업 전환 경로 | 강남훈(한신대학교 명예교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논지) 중앙 재정에 의존하는 한 본사업 확대가 어려운바, 시범군들이 이미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 이익공유를 기본소득의 자체 재원으로 결합해 지역이 스스로 지속시키는 모형을 구축하자는 구상
- 지역화폐 지급으로 마을 상점·소상공인을 통한 지역 순환을 유도하며, 축소되는 중앙 예산 대신 지역 자체 재원 확보를 다음 단계로 설정
- 2028년부터 69개 인구감소 군 약 500만 명으로 확대. 국비 40%·광역 30%·기초 30% 중 광역 부담이 최대 과제
- 시범군 다수가 공유부 기본소득, 특히 태양광·풍력 소득을 병행 추진
 - * 신안군: 월 20만 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화. 해상풍력 본격 가동 시 1인당 연 600만 원 전망
 - * 진안군: 월 15만 원, 465MW 태양광·풍력 계획으로 1인당 연 200만 원 목표
 - * 순창군: 월 15만 원, 복지예산 132억 원 재배분 및 햇빛공유기금의 주민 예치금 매칭
 - * 영양군: 월 20만 원, 풍력 수익으로 추가 5만 원 충당
 - * 화천군: 월 15만 원, 얼음축제 수익·예치금 이자와 유희 군용지 15MW 태양광

- * 연천군: 비무장지대 인근 유희 군용지를 활용한 평화햇빛순환마을 연금
- * 부안군·영광군: 시범군 미해당에도 해상풍력 연금 자체 추진(2030년 월 25만 원, 2037년 월 29만 원 목표)
- 탄소세는 오염 억제와 전환기 실질소득 보전을 위한 조세, 태양광·풍력 배당은 신규 부를 창출해 공유하는 지분 배당으로 구분. 전환이 진전될수록 전자는 축소되고 후자는 확대

부록: 출장자 발표자료 주요 내용

1. 류근관 자문단장

BIEN DISCUSSION

Beyond UBI

A Basic Four-Part Framework for the AI Economy

Basic data · Basic measurement · Basic training/solution · Basic execution

Keunkwan Ryu
Emeritus Professor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GDD for Social Experiments

From Honest DiD to placebo-calibrated robustness

Keunkwan Ryu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GDD for Social Experiments 3

2. 김상효 연구위원

Evaluating Korea's Rural Basic Income Pilot A Multi-Source Evaluation Framework under Real-World Policy Constraints

Sanghyo Ki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RC Rural Basic Society Research Group

BIEN Congress 2026
22 August 2026

Talk Roadmap

- 1 Evaluation setting: rollout, evidence, and identification constraints
- 2 Administrative and private data: regional outcomes and methods
- 3 Household panel: matching, sampling, waves, and estimation
- 4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the first economic link
- 5 Specific topics and preliminary results: welfare, preferences, population, and spending
- 6 Concluding remarks: standards for credible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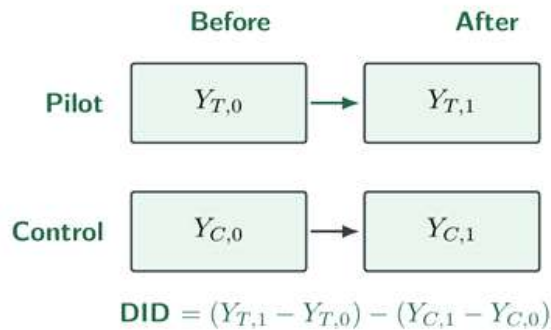
One-sentence preview

The policy was not randomized, but exact timing, visible comparisons, and multiple data sources support a data-driven learning strategy that can still produce careful evidence.

2 / 30

The design compares changes over time and across counties

The main contrast is treatment versus comparison, before versus after



How the comparison works

- Treatment: the ten pilot counties
- Controls: pre-fixed, similar non-pilot counties
- Panel evidence: Wave 1 versus follow-up waves
- Regional evidence: long pre- and post-policy histories

Key point

This is a quasi-experimental comparison, not random assignment. Pre-trend and robustness checks are central because of awareness of future payment at baseline, readiness-linked selection, spillovers, policy variation, and few county clusters.

5 / 30

Three classic designs provide the starting point

Each design answers a different question; detailed choices remain outcome-specific

1. Difference-in-differences

$$\hat{\tau}_{DID} = \Delta \bar{Y}_T - \Delta \bar{Y}_C$$

Average treated-county change minus the selected control-group change.

Flexible choice: pre-policy window

Choose a window long enough to assess fit and pre-trends, subject to stable data definitions.

2. Event study

$$Y_{ct} = \alpha_c + \lambda_t + \sum_{k \neq -1} \beta_k D_{ct}^k + \varepsilon_{ct}$$

Leads assess pre-trends; lags trace the path of effects.

3. Synthetic control

$$\hat{Y}_{ct}^0 = \sum_{j \in \mathcal{D}} w_j Y_{jt}$$

$$\hat{\tau}_{ct} = Y_{ct} - \hat{Y}_{ct}^0$$

Donor weights reproduce the pre-policy path and form the counterfactual.

Flexible choice: control-group pool

Choose untreated counties from the original 69 using transparent spillover exclusions, balance, and pre-trends.

Note

Starting models only; research teams choose detailed specifications, and the next presentation develops them.

11 / 30

MPC is the share of an additional transfer spent on consumption

ΔC is consumption spending that would not have occurred without the basic-income payment

$$\Delta B = \Delta C + \Delta A, \quad MPC = \frac{\Delta C}{\Delta B} = 1 - \frac{\Delta A}{\Delta B}, \quad 0 \leq MPC \leq 1$$

ΔB
Additional basic-income
payment

ΔC
New consumption relative to the
no-payment path

ΔA
Other uses: saving, debt repayment,
transfer to others, delayed spending

$$MPC = 0$$

No new consumption spending
is created.

$$MPC = 0.4$$

KRW 40 of every KRW 100
is new consumption spending.

$$MPC = 1.0$$

Every additional won becomes
new consumption spending.

The $[0, 1]$ range of MPC is the benchmark. A short-window empirical estimate may differ because of timing, anticipation, or measurement error.

18 / 30

New consumption or a shift in where people buy?

The MPC study tracks online, local offline, and nonlocal offline expenditure

$$\begin{aligned} C &= C^{on} + C^{off} \quad (\text{online} + \text{offline}) \\ &= C^{on} + \underbrace{(C^{same} + C^{other} + C^{out})}_{C^{off}} \end{aligned}$$

C^{on}
Online spending

C^{off}
Offline spending

C^{same}
Offline, resident's
town

C^{other}
Offline, elsewhere in
the same county

C^{out}
Offline, outside
county

$$\begin{aligned} L &\equiv C^{same} + C^{other}, & s^L &\equiv L/C \quad (L = C s^L) \\ \Delta L &= \underbrace{\bar{s}^L \Delta C}_{\text{total-consumption contribution}} + \underbrace{\bar{C} \Delta s^L}_{\text{local-share contribution}}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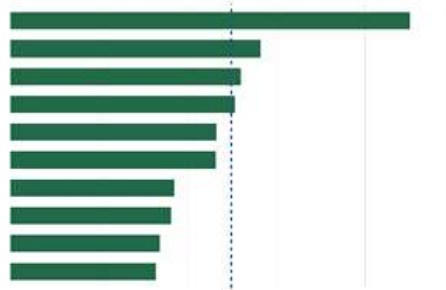
$\Delta C > 0, \Delta s^L > 0$: more total consumption and stronger local retention. $\Delta C \approx 0, \Delta s^L > 0$: mainly a shift in where existing consumption occurs.

Key point: Local spending alone does not show new consumption; report both amounts and shares.

21 / 30

Reported population counts rose in every early-cohort county

Combined count: 319,005 → 334,904 by July 2026 (+15,899; +5.0%)



Blue dashed line: ten-county total.

Ten-county total

+15,899
people; +5.0%

County pattern

All ten changes are positive.
Shinan the largest at 9.0%.

Read with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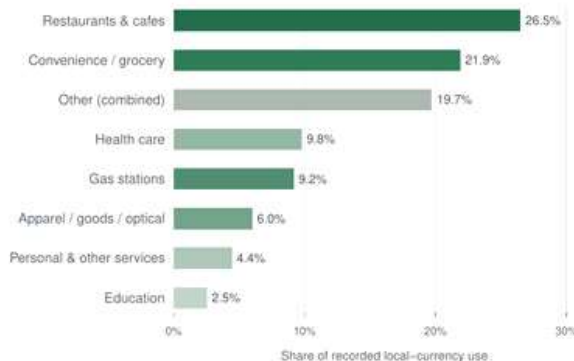
Reference months are
September or November
2025, depending on the
selection date.

Early descriptive signal: the causal test is whether the rise exceeds a matched donor path.

24 / 30

Retail and food services accounted for 68.2% of reported use

Pooled transactions in ten early-cohort counties, 26 February to 28 June 2026; KRW 209.7 billion recorded



Two leading sectors

68.2%
retail + food services

Recorded total

KRW 209.7 billion

Merchant location

Eup: 53.0% Myeon:
47.0%

Policy target: strongly
encourage spending in myeon
areas.

These shares show where program currency was used—not how much total consumption increased. They do not identify MPC or net local sales.

26 / 30

3. 정문수 연구위원

Basic Income in Rural Perspective:

Socio-spatial Contexts, Challenges, and Securing the Future

Moonsoo Jung, PhD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BIEN 2026 Congress | Toronto, 22 August 2026

1

Outline

1. The rural context
2. How the initial conditions took shape
3. How the programme is starting on the ground
4. Rural challenges and securing the future

Outline

2

How the local arena is responding: Okcheon County - town and townships (1)

Place	Who acted	What happened
Okcheon-eup — 67.1%	Parcel-hub returns outlet	Thursday queues; new goods for elders
Dong-i-myeon	Shopkeeper; village co-op	Grocery added; store as meeting place
Gunbuk-myeon	Village firm vs incumbent	New shop, a clash; first mobile market
Annam-myeon	3 social-economy bodies	Joint outlet shares staff and costs
Cheongsan-myeon	Young in-migrants	Salon and clothing shop, at urging
Cheongseong — 0.6%	Council co-op (80)	Pop-up twice a month, 60% pre-ordered
All eight townships	Civic bodies; farm co-op	Mobile markets split four and four
Households	Paid on the 27th	Days 27-30 spending; rice to children

Okcheon County, North Chungcheong Province — population 50,547; one town (eup) and eight townships (myeon). A county is Korea's municipal tier of government, a province the regional tier above it. Every layer of local society is responding in its own way.

22

How the local arena is responding: Okcheon County - town and townships (2)

Response	What is actually happening
Co-operation	3 bodies run a mobile market round 4 townships
Competition	Village shop clashes with an incumbent store
Voluntary redistribution	20 women farmers pool transfers for an artist
Care through commerce	Shopping becomes a safety net of daily contact
Demands on the state	Zoning bars coffee at the store; sandbox demanded

Communities respond not merely as consumers: they co-operate, compete, redistribute voluntarily, turn shopping into a safety net, and press on regulation. These local responses are themselves initial conditions of the institution.

Okcheon interviews and records; SisalN 985-986; market agreement, Jun 2026.

23